

소금 만드는 기술 '제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온 제염법
1907년 도입돼 현재까지 이어온
천일제염법으로 나누어
문화재청, 최종 여부 결정기로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의 갯벌을 이용하여 소금을 얻는 '제염'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소금산지가 없었던 우리나라는 바닷가에서 갯벌, 바닷물, 햇볕, 바람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어왔다.

'제염'은 고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이어져온 전통적인 제염법과, 1907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온 천일제염법으로 나뉜다.

먼저 제염법은 바닷물의 염도를 높인 뒤 끓여 소금을 얻는 방법이다. 갯벌을 갈아엎고 부순 후에 햇볕에 말려 수분을 증발시키면 소금기만 흠에 남는다. 그 흠에 다시 바닷물을 끼얹고 갈아엎고 말리는 작업을 반복하면, 갯벌의 흠은 소금기로 뒤덮인다. 이를 함토라고 하며, 함토에 바닷물을 부어 염도를 높인 함수를 다시 소금가마에 끓여 소금을 만든다.

천일제염법은 염전에 바닷물을 넣고 햇볕, 바람을 이용하여 수분을 증발시켜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제염은 세계적으로 독특하게 갯벌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이 예고된 제염.

을 이용하여 소금을 생산한다는 점, 음식의 저장과 발효에 영향을 주는 소금이 한국 고유의 음식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우리나라 갯벌의 생태 학술연구에 이바지한다는 점, 고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동·서·남해안 모든 지역에서 소금이 생산되어 우리나라의 어촌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화재청은 제염이 표준적인 지식체계가 아닌 경험적 지식체계이고 집승 지역이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해, '해녀'(제132호)나 '김치 담그기'(제133호)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 예고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염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플로리다 프로젝트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 시상식을 휩쓸다 이번주 상영작 2편 공개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은 미국의 혁신적인 젊은 거장 선 베이커 감독의 신작 '플로리다 프로젝트'와 현대의 피겨스타이자 약녀로 불린 토나 하딩을 다룬 '아이, 토나'를 상영한다.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플로리다 디즈니월드의 컨너편의 자리잡은 모텔 매직 캐슬에 살고 있는 귀여운 6살 꼬마 무니와 친구들, 그리고 그곳을 관리하는 매니저 바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최근 개봉했던 '땀저린' 등을 통해 주목받는 차세대 미국영화감독으로 손꼽히는 선 베이커 감독이 처음 아카데미 시상식에 진출하게 된 작품이다.

명배우로 정평이난 윌렘 데포는 이 작품을 통해 아카데미 시상식 남우조연상 후보를 비롯해 2017년 각종 미국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 22관왕을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한편의 영화 '아이, 토나'는 미국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킨 피겨 스케이팅 선수 토나 하딩이 동계 올림픽 출전권을 따기 위한 과정에서 현대의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더 울프 오브 윌스트리트' '수어사이드 스퀴드' 등으로 세계적인 스타배우가 된 마고 로비가 피겨스타 토나 하딩 역을 맡아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작품으로 화제가 되었다.

지난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마고 로비가 여우조연상 노미네이트, 라보나 골든역을 맡은 앨리스 제니가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명실공히 올해 가장 연기적으로 돋보이는 여자 배우들이 출연하는 작품으로 인정받았다. /정해은 기자



아이 토나

'솔숲의 빗장 열다'

석운 박용덕 사진전

사진가 박용덕(75)은 굵고 웅장한 소나무에 천착한다. 나무가 가진 표피의 굴곡과 질감, 그리고 거친 흔적들이 마치 인간의 삶과 흡사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런 소나무를 감정전이의 대상으로 생각, 거울 앞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모습처럼 대했다며 노송이 내재하고 있는 감각적인 신비함과 예술적 의미를 사진에 담고 싶었다고 한다.

박 작가가 간의 작업 활동 결과물을 사진전·사진집·시집으로 첫선을 보인다. 10일부터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솔숲의 빗장을 열다' 전에 그의 경험과 철학을 옮겨 놓았다.

근 10여 년간 소나무 주변을 맴돌며 사진을 찍어 온 그가 최적의 작업환경으로 꼽는 조건은 활엽수가 울창한 10월에서 3월까지. 이는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형적인 특성을 엿볼 수 있어서다. 여기에 산을 구름이 덮는



작은 석전마을

다거나, 자욱한 안개가 펼쳐질 때, 보슬비나 서늘이 내리는 날까지 더해지면 더할 나위 없다고 한다.

그는 "소나무가 이 땅에서 점차 사라지는 환경이 안타깝다"며 "이번 전시는 소나무에 대한 기록이자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보이는 사진집은 카메라만으로

답안될 수 없는 소나무의 서정적인 면은 운문을 곁들여 작품의 이해를 돕는다.

석운 박용덕은 김제 출생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36년간 교편을 잡았다. 현재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전북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전북도립국악원 '꿈의 축제' 무대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이 전국 6개 국악관현악이 하나 되어 펼치는 '꿈의축제' 무대에 오른다.

오는 12일 강릉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는 2018평창동계패럴림픽과 함께하는 문화올림픽의 일환으로, 전국 국악단 소속 연주자 150여명이 하나의 관현악단을 이뤄 각 지역의 대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서로의 음악을 공유한다. /정해은 기자

꿈의 축제는 경기도립국악단의 경기민요 '긴아리랑·노랫가락·창부타령·경북궁타령'을 시작으로 경북도립국악단의 타악협주곡 'Heart of Storm', 전북도립국악원 남도민요 '봄노래·사철가', 전남도립국악단의 설장구협주곡 '소나기', 충남국악관현악단의 해금협주곡 '해금을 위한 불이 세상풍경'로 꾸민다. 대미는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의 국악관현악 '아라리' 연주를 통해 하나된 환상적인 하모니를 선사한다. /정해은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